

6 기획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후마의 15년 묵은 논쟁 상대 · 절대평가 넘어 교육철학에 맞는 기준 필요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 ⑦평가방식

2011년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 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신문은 15년이 흐른 지금, 교양교육의 전범(典範·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模範)으로 불리던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짚고자 한다. 이번 2부 3회차에선 학생들이 후마 교육의 꾸준한 문제점으로 지적한 ‘평가 방식’을 다룬다.

경쟁 중심의 ‘상대평가’ 체제 후마 철학에 걸맞는 평가방식 필요

후마가 출범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교양교육의 평가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몇몇 교과목을 제외하면 상대평가로 점수를 매기는 지금의 후마에선 옆자리 학우를 제쳐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어떤 방식이 후마의 교육철학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양 캠퍼스의 입장이 엇갈려왔다. 서울캠을 중심으로

절대평가 전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국제캠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2011년 7월, 후마 설립위원이자 ‘시민교육’ 주임교수였던 우기동 교수는 시민교육의 절대평가 유지를 결정하며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현장활동이 일종의 실기평가가 되기 때문에 교과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절대평가제를 택했다”고 말했다. 2012년 5월엔 양캠 글쓰기 교과목의 평가방식이 달라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김동건 PD교수는 “글쓰기 교과 교육 목표는 학생의 자아성찰이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적합하다”며 “특히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글에 평가하는 ‘합평’은 경쟁원리를 통해서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교수들은 지향점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선 그에 맞는 평가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마는 교육 지향점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 대학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탐구활동과 정신 가꾸기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교육’, ‘계층과 신분, 종교, 지역 등이 벽을 넘어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능력’, ‘선의’와 배려와 공감의 공동체적 가치들을 체득하게 하고 사회봉사의 정신을 길러주는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학교 교양교육

은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사유의 깊이를 키우는 데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양교육의 최종 목표를 두고 “교양은 한두 해의 학점을 따는 것으로 달성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학점 앞에서 학생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상대평가 체제에선 더욱 그렇다. “장단점이 있지만 상대평가는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모두가 경쟁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김아현(일본어학 2023) 씨의 말처럼 A학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대평가 체제에선 모두가 경쟁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반복된 평가방식 전환 논쟁 양캠 의견차로 15년째 ‘답보’

후마의 평가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설립 초기부터 존재했다. 본격적으로 후마가 학생들을 만나기 1년 전부터 우려가 있었다. 2010년 후마 대학생위원회 김기웅(지리학 2004) 위원장은 당시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를 선호하며, 학점제도보다 ‘Pass/Fail’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식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보다는 교양교육의 취지에 맞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

다. 2012년 총학 선거 때 ‘교양 절대평가제 전면도입’ 공약을 내세운 후보도 있었다.

평가방식에 대한 양캠의 이견도 일찍부터 나타났다. 2012년 5월, 서울캠은 글쓰기 중핵교과를 절대평가로 확정했지만 국제캠은 글쓰기 상대평가를 유지했다. 같은 학교, 같은 과목이지만 양캠 학생들이 다른 방식으로 평가받게 됐던 것이다. 2013년엔 중핵교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주제로 중핵교과 운영위원회 교수 5명, 학생회 대표 5명의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학생대표는 “학생 모두의 노력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선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진은 “절대평가 전환으로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4년이 지난 2017년, ‘후마 재도약을 위한 학생의견수렴 공청회’에선 이준태 교수가 “줄세우기는 후마 가치에 부합하지 않아 절대평가와 Pass/Fail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서울캠 총학의 교양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들은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를 선호했지만, 변한 건 없었다.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일회성 문제에 그치지 않았던 셈이다.

여전히 대다수 과목이 상대평가 줄 세우기에 답답한 학생들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마 교양과목은 일부 중핵교과를 제외하면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칙상 학부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일부 강좌에 한해 상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1학기 우리신문의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여전히 학생들은 56.2%가 ‘후마와 같이 토론·글쓰기·성찰·실천을 지향하는 수업에 상대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상대평가는 제한된 비율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 학습 의욕을 꺾는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교양은 경쟁보다 각자가 얼마나 생각하고 표현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들이 느낀 불편함은 설립 초기 후마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현재의 평가체제에선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닌 자신의 사고를 끄는 ‘지평융합의 원칙’,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는 ‘문제탐색의 원칙’이 포함된 후마 교과조직의 6대 원칙에 반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후마 수업에서는 결과보다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경우도 있다.

7면에 계속 →